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1. **공주** 선학리 지게마을 및 지게놀이
2. **금산** 개삼터와 인삼밭
3. **금산** 농바우끄시기(기우제)&물폐기 농요
4. **당진** 합덕제(연호방죽)
5. **서천** 그레질
6. **청양** 신대리 사자산마을 다랭이논
7. **태안** 독살
8. **태안** 자염
9. **홍성** 문당마을
10. **부록**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목록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선태리 지계마을 및 지계놀이
	형태	<input type="checkbox"/> 밭 <input type="checkbox"/> 논 <input type="checkbox"/> 水 <input type="checkbox"/> 작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소재지	충남 공주시(군)
주요 특징	<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	
	1.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말기 공주군 신하면 지역으로 1914년 신하면 오선대와 학동에서 ‘선’ 자와 ‘학’ 자를 따서 선태리로 명명되었으며 총 77세대 173명이 농경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임 - 임진왜란 당시부터 행해지던 민속으로 연탄 등 현대 연료의 보급으로 나무꾼들이 사라지면서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소멸되었다가 1993년 지계놀이를 재구성 재현하여 2004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37호) 	
	2. 농촌생활시스템(생활양식, 계승 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들과 밀접한 농기구인 지계를 이용하여 즐기는 놀이문화의 결집체로 일반적인 타지역의 지계놀이에 비하여 두레 막음하는 날 시행되어 전래된 지계무당이와 호맹이끌기가 삽입되어 일종의 마을집단 놀이로 체계화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 민속 관련 자료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민속놀이임 - 지계놀이의 종류는 지계상여놀이, 지계 풍장, 지계장단노래, 지계 지네발놀이, 지계 걸음마, 작대기 걸음마, 지계 썰매, 작대기 싸움, 지계 작대기 꼬누기, 지계 꽃나미, 힘자랑 등 12종으로 놀이와 가락으로 구성됨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외에도 선태리의 산신제, 노신제, 신세타령 등 농촌과 관련된 많은 민속자료 보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계놀이보존회를 구성하여 운영·교육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local3&uid=259775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금산군 개삼터와 인삼밭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밭 <input type="checkbox"/> 논 <input type="checkbox"/> 水 <input type="checkbox"/> 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재지	충남 금산 시(군) 남이면 성곡리
주요 특징	<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	
	<p>1. 역사성</p> <p>개삼터(인삼 재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1,500년의 역사</p> <p>– 1,500년전 강씨성을 가진 선비가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병이들어 자리에 눕자 진악산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모친의 쾌유를 빌던중 어느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현몽하여 "관음봉 암벽에 가면 빨간열매 3개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는 달여 드리니 모친의 환은 완쾌되었고, 그 씨앗은 지금의 남이면 성곡리 개안 이 마을에 심어 재배하기 시작하니 인위적으로 처음 재배가 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 당시 그 씨앗은 열매3개가 달리고 모습이 마치 사람의 형태와 비슷하다 하여 "인삼"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함</p> <p>– 인삼을 처음 재배한 곳은 금산의 진산 진악산(733.3M) 동쪽자락. 진악산이 동쪽으로 산의 줄기를 뺏어내려 양팔로 감싸 안는 듯 한 형국의 골짜기 언저리의 산 자락이다. 후대에 이러한 산의 형국을 이용하여 골짜기 위에 독을 쌓고 저수지를 조성한 곳에서 500m 남짓 골짜기 끝에 시배지는 위치하고 있음</p>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농바우끄시기(기우제)&물폐기 농요
	형태	<input type="checkbox"/> 밭 <input type="checkbox"/> 논 <input type="checkbox"/> 水 <input type="checkbox"/> 작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민속신앙)
	소재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주요 특징	<p>〈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p> <p>1. 농촌생활시스템(생활양식, 계승 문화 등)</p> <p>1) 농바우끄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변 어재리 느재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과 제원면 일대에서 치러지는 기우제 - 농바우 끄시기를 할 날이 밝으면 남자들은 밤새 켜 동아줄을 농바우에 걸며 농바우 끄시기 준비를 하고 여자는 제물과 음식을 준비함 - 30대 이상 부녀자들이 주관, 남존여비사상이나 조신함이 미덕이었던 당대의 풍습에서 여성이 주관하는 민간행사는 흔치 않음 - 남성들은 기우제에 필요한 짐을 날라다 주고 그 자리를 떠야하는 풍습. 이 때 선소리꾼 남성 한명이 남아 산제가 농바우 끄시기 노래를 선소리·받음소리로 구성지게 진행하고 농바우 아래 흐르는 계곡의 물에 떼지어 들어가 알몸으로 날갯이를 하고 끝을 맺음 - 현재 양철규씨가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3년에 보존회가 구성된 이후 금산인삼축제, 금강민속축제 등에 참여하여 활발한 전승활동 펼치고 있음 <p>2) 물폐기 농요(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1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촌리 물폐기 마을일대에서 약 200년 전부터 전해오는 농요로 농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노래와 동작으로 표현함 - 마을과 결속과 협동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1991년도 전국 민속경영대회에서 국총리상 수여, 물폐기농요보전위원회 결정하여 보존에 힘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출처: http://blog.naver.com/geumsanlove?Redirect=Log&logNo=220006410954</p>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합덕제(연호방죽)	
	형태	<input type="checkbox"/> 밭 <input type="checkbox"/> 논 <input checked="" type="checkbox"/> 水 <input type="checkbox"/> 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재지	충남 당진시(군) 합덕읍	
주요 특징	<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		
	1. 역사성 - 통일신라 후기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둔전을 개간하고 9,000명의 병사와 말 6,000필을 주둔시켜 이를 통해 합덕제를 만들었다고 전해짐 -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인공 저수지		
	2. 경관적 특징 - 높이 7~8m, 제방길이 1,771m, 저수면적 103만㎡에 관계면적 726ha나 되는 대규모의 저수지 - 지금은 저수지가 논으로 변하여 제방만 남아있고, 제방의 서쪽 끝에는 보수할 때의 기록을 적어둔 중수비가 5기 남아있음		
	3. 전통적 농법(농업활동) - 합덕제는 오래된 우리나라 농업구조물로 전통적인 수리도구로 독특한 방법으로 축조한 우리나라 수리역사의 중요 자료임 - 최초 흙을 쌓아 방죽을 만들었으나 후에 돌을 이용하여 일부 보수함		
	4. 기타 - 죽어서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가면 “너 합덕제에 가 보았느냐?” 라고 묻는데 가봤다고 하면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생전에 무엇을 하였기에 그 유명한 합덕제도 가보지 못했느냐?” 고 꾸지람을 듣는다는 전설이 있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그레질		
	형태	<input type="checkbox"/> 밭 <input type="checkbox"/> 논 <input type="checkbox"/> 水 <input type="checkbox"/> 작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갯벌)		
	소재지	충남 서천군	면	리 번지
주요 특징	〈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			
	1. 역사성 : 오랜 전통			
	2. 경관적 특징 : 갯벌			
	3. 전통적 농법(농업활동) : 그레질로 조개잡기			
	4. 농촌생활시스템(생활양식, 계승 문화 등) : 조개잡이 생활양식			
	5. 기타			
관련 사진 첨부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신대리 사자산마을 다랭이논
	형태	<input type="checkbox"/> 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 <input type="checkbox"/> 水 <input type="checkbox"/> 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재지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79번지
주요 특징	<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	
	1. 역사성 - 사자산마을 옛 지명 길라잡이를 발간함. "신대2리는 예로부터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운곡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던 유서 깊은 마을. - 구봉광산과 더불어 충남지방의 대표적인 금광산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금광의 개발과 더불어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 배미실 일대의 3개의 골짜기는 일제시대 개발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던 삼광금광이 자리했던 곳 - 충남지역의 밀교 4대 사찰로 운곡사라는 고찰이 조선시대 중기까지 있었던 곳으로 현재도 사찰터와 부토, 곳곳의 암자터와 더불어 이 마을만의 120여 개의 독특한 고유의 지명이 골골마다 화석처럼 남아있음	
	2. 전통적 농법(농업활동) - 농사를 짓지 않은지 50여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는 숲이 되어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골짜기의 계단식 밭의 석축들이 있고 아직까지 농사나 체험활동으로 이용되는 2,000여평이 다랭이논과 1만여평의 돌담밭들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음	
	3. 기타 - 칠갑산 국사봉 영농법인 '신대리사자산다랭이논복원사업' 함 - 사자산 국사봉 산제당 탐방 명상로와 신대저수지 주변 생태체험학습장, 참사리 고추, 된장 가공공장 체험장, 사자산 장뇌삼 채취체험 및 등산로, 돌담다랭이 우렁이 논 영농체험장, 폐광부지 광해복구 현장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준비	
		
출처: http://www.c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12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태안군 독살
	형태	□ 밭 □ 논 □ 水 □ 작물 ■ 기타(어법)
	소재지	충남 태안 시(군) 남면 원청리(별주부 마을)
주요 특징	<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	
	1.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리 노루미 독살의 제보자인 김종목옹(95세)의 제보에 따르면 약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짐 - 세종실록지리지에 각 도의 어살(독살) 수가 기록 - 한국수산지에 1910년 경 충남해안지역 독살이 있다는 기록 	
	2. 태안지역 독살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현재 충남 해안지역에 109개 독살 존재(태안군 87개) - 이 가운데 독살의 원형이 완전한 것은 전체의 6.4%(7개) - 독살의 형태는 반타원형, V자형, U자형, L자형 	
3. 어업시스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살의 약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어업시스템 - 독살의 구조는 크게 돌을 쌓은 돌담부분(활가지)과 갇힌 고기가 마지막 모이게 되는 입통부분으로 구성 - 지역별로 해안구조에 따라 돌담부분, 입통부분의 크기, 높이가 다양, 즉 돌담 높이, 입통 구조 등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민의 지혜를 엿볼 수 있음 		
4. 기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태안군 자염		
	형태	□ 밭 □ 논 □ 水 □ 작물 ■ 기타(소금 생산방식)		
	소재지	충남 태안 시(군)	면	리 번지
주요 특징	<p>〈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p> <p>1. 역사성 :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보급되어 만들어진 역사가 짧은 소금이다. 그러나 자염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소금이다.</p>			
	<p>2. 경관적 특징 : 태안군 갯벌 습지에서의 소금 생산</p>			
	<p>3. 전통적 농법(농업활동) : 조수 간만의 차이를 활용해 갯벌에서 썰래질로 갯벌흙을 말리고 걸러 함수를 만든 다음 10시간 동안 불을 지펴서 소금을 생산한다. 이 방법은 태안에서만 행해 지고 있다.</p> <p>보통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지만, 자염은 갯벌을 말려 갯벌에 남아 있는 염분으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조수간만에 따른 자연조건을 그대로 활용한 방법이다.</p>			
	<p>4. 농촌생활시스템(생활양식, 계승 문화 등)</p> <p>소금은 과거 금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만큼 귀했던 소금은 갯벌이라는 악조건에서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태안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자연조건을 활용해 갯벌에서의 소금 생산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염은 갯벌에서 함수를 만들고 하는 생산방식이 매우 특이하다.</p>			
	<p>5. 기타 :</p> <p>자염은 수많은 유기물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아왔기 때문에 천일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성이 있다. 또한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뼈와 치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좋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p style="margin-top: 10px;">사진출처 : 충남도청 도민리포터 http://blog.daum.net/e-chungnam/1937</p>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자원 예비조사표



대상	명칭	홍성 문당리마을과 친환경작목회	
	형태	<input type="checkbox"/> 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일대	
주요 특징	<p><아래 사항에 따라 특징 간략히 기술></p> <p>홍동마을의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는 농약과 화학비료로 농사를 지었던 관행농업 시기에 오리농법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다. 1994년 농약과 화학비료로 농사짓던 관행농법에서 탈피하여 오리농법으로 시작한 홍동의 유기농업은 1994년 19농가가 31,900평(농가당 1,678평)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는 30농가, 2002년 430농가가 115만평(농가당 2,674평), 2009년 800여 농가가 250만평(농가당 3,125평)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250만평의 유기농 재배단지를 형성하여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단지로서 친환경농업의 표본, 유기농법 재배의 산실이 되고 있는 마을이다.</p> <p>유기농쌀의 원조로 불리는 홍동지역은 대규모 재배단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주변의 관행재배로 인한 비산(농약이 날아오는)의 위험성이 적어서 타지역에 비해 특히 더욱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속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라고 본다.</p> <p>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존과 생명문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환경을 생태공원(ecopark)으로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p> <p>참고로 현재 문당리 마을은 홍성친환경마을 영농조합법인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 구성을 살펴보면 조합원 1인당 150만원 가량 출자, 총 52명이 발기하였고 대부분 문당리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일부 차산리 주민도 포함되어 있다.</p> <p>운영원칙은 의사결정의 투명성,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명분, 형평성 등이다. 운영방식은 법인 형태이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출자금 배당은 있으나 이용고 배당(연말정산해서 수익의 7%를 배당으로 처리)은 없다.</p> <p>사업현황으로는 환경농업교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소득원이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복지 및 교육사업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실시는 기본이고 사회적 기업인증(2012년 3월)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마을주민의 친환경쌀 중 10%만 출하하고 나머지 90%는 농협계통출하(생산 및 유통규모에 맞는 만큼만 도정, 판매하고 나머지는 농협RPC 이용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는 실정이다. 매년 조합원과 비조합원 나들이 행사 실시 등 환원사업도 한다. 매년 끊임없이 색다른 시도와 노력을 하는 것이 법인의 목표이자 방향이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표1. 홍동 문당리마을의 역사

연도	내용
1977년	벼농사 유기농업 시작
1990년 대 초	주형로 회장이 오리농법 주장, 실천하기 시작
1992년	가을걷이 나눔의 잔치 행사 유치
1994년	무농약 재배단체 인증
1995년	도농일심 6월 오리입식 행사 시작
1996년	오리농법작목반 구성 * 문당리 오리농법에 의한 오리농사는 1996년 이후 홍동농협과의 단지 계약방식 판매
1998년	유기재배단지 단체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99년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설립, 벼 수매제도 실시, 생산자·농협·유통업체 삼자 계약재배 실시
2000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서 수립
2001년	홍동농협과 전량수매 협정 체결
2001년	농촌생활유물관 착공
2002년	홍성오리농법 단지 100만평 돌파 2월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환경부), 4월 농촌생활유물관 준공(유물 1,000여 점 전시) * 벼 수매 시 가마당 소정의 마을 환경기금 모아서 도시와 소비자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적립금으로 환경농업교육관, 농촌생활유물관, 마을정보센터 등 건립)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제2회 농촌마을 가꾸기 대상 수상(농림부), 유기농재배 벼 전문도정공장 운영
2004년	문당리 지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문당, 금평, 화산리)
2006년	DSC(유기재배 벼 건조정 시설) 설치 운영, 정부에서 70억원 지원,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오리농법 쌀 단지 조성, 현재는 문당리 인근 지역 전체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
2007년	RPC(친환경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준공, RPC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쌀 생산 시설 구축, 수매부터 냉장보관까지 일원화 시스템 구축
2009년	유기농쌀 해외시장 개척(홍콩, 미국)

<친환경작목회>

1993년 신지식농업인 주형로는 풀무학교에서 배운 정신에 따라 농약과 비료로 죽어가던 땅을 살리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리를 이용한 벼농사를 시작한 것이 홍성친환경작목회 역사의 시작이다. 그 뒤를 이어 홍성지역에서는 1994년에 19농가 31,900여평에서 오리농법 단지를 만들면서 홍성친환경작목회가 결성되었고 지금은 220농가 80만평의 단지에서 유기농사를 함께 짓고 있다. 농민 스스로 마을 단위 작목반을 구성한 사례로서 홍동면내 12개 작목반으로 이뤄진 연합체이다. 유기농사에 필요한 생산관리, 교육, 인증관리 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작목반 회원들이 생산하는 유기재배 쌀은 모를 심기 전에 이미 생산계획량과 수매가격이 홍동농협과 계약이 이루어져 판매 걱정 없이 수확과 동시에 홍동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판매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오리농업을 시작하면서 1995년 처음 열린 ‘도농일심 함께 짓는 농사 오리입식 대회’는 농촌의 환경오염과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를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할 과제임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해마다 2,000여명의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만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벼농사 교육을 통해 벼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도시학교와 자매결연 맺어 농업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 책임지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표2. 친환경작목회의 역사

연도	활동내용
1993년	신지식 농업인 주형로는 풀무학교에서 배운 정신에 따라 농약과 비료로 죽어가던 땅을 살리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리를 이용한 벼 농사를 시작 그 뒤를 이어 홍성지역에서는 1994년 19농가, 31,900평에서 오리농법 단지 조성 (농가당 약 1,678평 규모), 홍성친환경작목회 결성
199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리농업 시작(주형로 9,000평, 박민기 1,000평, 이동준 1,000평)
1995년	오리농작목반 구성(19농가, 31,900평) 오리농업 시작하면서 처음 열린 ‘도농일심 함께 짓는 농사 오리입식 대회’
1996년	홍성 오리농업단지 홍동농협과 흑향미 계약재배 1,000평 홍동농협에서 수매제도 방식 오리농쌀 판매
1998년	홍성 오리농업단지(정농환경보전 오리농업단지) 오리농벼 유기재배단지 단체품질인증(인증번호 : 13-14-08)
2002년	홍성 오리농업단지 100만평(유기인증 430농가, 115만평) 돌파 홍성친환경쌀작목연합회 발족
2003년	홍성군 친환경쌀작목회 회원이 늘어나 생협과 농협으로 유통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 마을별로 생협, 농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분리(홍성군 친환경쌀작목위원회는 생협 3인, 농협 3인으로 유지), 농협-홍성환경보전유기농업쌀작목회 구성
2005년	제5회 아시아오리벼농사 농민대회 주최 주형로 회장 대한민국 동탑산업훈장 수상
2006년	홍성환경보전유기농업쌀작목회(농협)을 홍성친환경작목회로 명칭 개정
2010년	현재 220농가, 80만평의 단지에서 유기농사 (농가당 약 3,636평 규모)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목록

발표 순서	분야	지 역	유산자원	특 징
1	“	충북 제천	의림지	▶삼한시대에 축조한 농경문화의 발상지를 알려 주는 저수지(560ha)
2	“	전남 담양	대나무밭	▶풍해·홍수해 방지 등을 위해 조성한 집단 대나무 밭(1,797ha) 및 대나무 활용 죽세공품
3	“	전남 보성	녹차 밭	▶경사지에 형성된 경관이 뛰어난 계단식 녹차 밭(1,063ha)
4	“	전남 완도	구들장 논	▶우리나라 전통온돌인 구들장 방식을 사용하여 축조된 계단식 논(6.5ha)
5	“	경북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 및 자연생태환경 유지의 보고인 삼한 시대에 축조한 저수지 (24.6ha)
6	“	경남 하동	녹차 시배지 최고 차나무	▶우리나라 최초(828년)로 차나무를 심은 차나무 시배지 및 최고령(1,000년) 차나무
7	“	제주	돌담 밭	▶경계·방풍·우마 침입방지 역할을 위하여 밭 주위에 축조한 현무암 돌담(22,108km)
8	어업 유산	충남 태안	독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어법인 독살의 집단지(9개소)
9	“	전남 신안	갯벌, 염전	▶전국 갯벌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섬 갯벌 (450ha)과 국내최초 천일염 생산 염전(41.6ha)
10	“	전남 장흥	개매기 어장	▶조수간만 차 이용 전통 어장(1,000ha) 및 보호 대상 해양생물 ‘잘피’ 집단 서식지
11	“	경남 남해	죽방렴	▶대나무 및 말뚝 등을 사용, 조류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원시어업(23개소)
12	“	제주	돌 염전	▶해안 암반위에서 태양열에 의해 해수를 증발 시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2,640㎡)
13	“	제주	해녀 유산	▶맨손으로 바다 속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와 관련하여 형성된 자원(원담, 불턱, 해신장 등)